

헬스케어 집중... 웨어러블 강점... 위치기반 경쟁력



CES서 드러난 IT업계 로봇 차별화

삼성전자 '케어'

혈압·심박·호흡 등 건강 지속 확인

LG전자 '클로이'

가정·상업용부터 산업·의료용까지

네이버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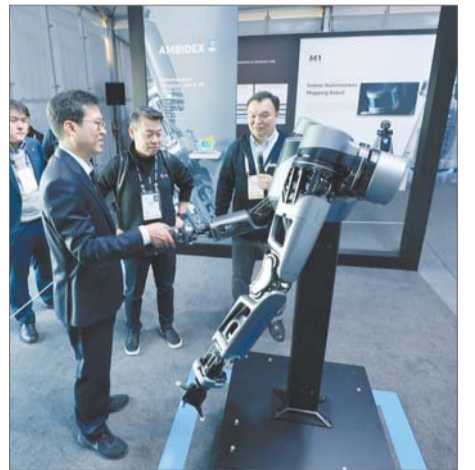
지도 강점 보유, 관련 기업과 협업



CES2019에서 삼성전자 전시관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젬스'의 시연을 보고 있다.



클로이 슈트봇.



/LG전자

CES 2019 네이버 부스에 방문한 노진서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네이버랩스 석상옥 헤드로부터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적용한 브레인리스로봇 '엠비텍스'의 설명을 듣고 있다. /네이버

고객 응대형 로봇, 반려 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 다양한 로봇 제품과 기술이 등장하면서 로봇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타 업체와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삼성 3종과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을 처음 공개했다. 인공지능(AI) 프로젝트로 개발된 제품들로, 삼성전자는 헬스와 라이프 케어 분야에 집중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로봇 중 하나인 삼성봇 케어는 혈압, 심박, 호흡, 수면 상태를 측정하는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줄 뿐 아니라 복약 시간과 방법에 맞춰 약을 먹였는지도 관리해준다. 위급 상황에선 119와 가족에게 연락한다. 이외에도 음악을 들려주고 함께 대화를 하는 등 반려 로봇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젬스'는 근력저하, 질환, 상해 등으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재활과 함께 일상 생활에서의 거동을 돕는다. 일반인의 근력 강화에도 활용 가능한 차세대 헬스케어 로봇이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고관절, 무릎, 발목 등에 착용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연내에 로봇 제품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LG전자 역시 CES 2019를 통해 산업현장, 상업공간, 물류시설 등에서 사용자의 허리근력을 보조하는 '클로이 슈트봇'을 공개했다. 이 제품은 LG전자가 지난 8월 선보인 하체근력 지원용 로봇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웨어러블 로봇이다.

이 제품은 사용자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허리를 굽히면 이를 감지해서 로봇이 준비상태에 들어가고, 사용자가 허리를 펼 때 로봇이 사용자 허리에 가해지는 힘을 보조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반복되는 작업에서 사용자의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초 LG전자 로봇을 총칭하는 브랜드 'LG 클로이'를 론칭한 이후 최근까지 슈트봇 외에 가정·상업용에서 산업·의료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 콘셉트들을 공개하며 로봇 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안내로봇, 청소로봇, 홈로봇, 잔디깎이로봇, 서브봇, 포터봇, 카트봇을 포함해 현재까지 9종의 로봇을 선보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CES에서 동시에 선보인 웨어러블 로봇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는 작업자들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랩스는 CES에 처음 참가해 로봇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로봇팔 엠비텍스와 실내 자율주행 가이드 로봇 어라운드 G를 시연했다. 네이버는 지도와 관련해 강점을 보유하고 있

다. 디지털 무선통신 기술 기업 웰컴, 조정밀지도 및 위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도업체 히어, 위치기반 서비스 기업 포스퀘어 등 굵직한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로봇은 다양한 기술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만큼 업체 간 협업도 활발하게 이뤄진다. LG전자는 CES 2019가 열리는 기간 중 네이버랩스와 공동으로 로봇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우선 LG전자의 클로이 안내로봇에 네이버의 고정밀 위치·이동 통합기술플랫폼을 적용해 로봇주행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추후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랩스 석상옥 헤드는 "논의가 오간 회사들의 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우수 글로벌 기업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온라인에서 자료로 협의하는 것

과는 차원이 다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위해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어디든 출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봇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업체의 고민 중 하나는 '차별화'다. 한 업체의 로봇 사업 관련 임원은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비롯해 많은 업체들의 로봇 외관이 유사한데 얼굴과 몸통에 화면을 달아 정보를 표현하는 로봇이 만들기 쉽기 때문"이라며 "일본에는 두 발로 뛰다니는 로봇도 있는데 미래에는 그런 로봇들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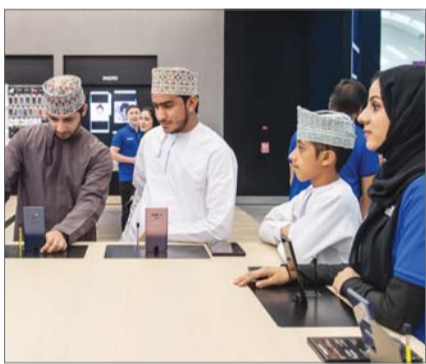
두바이에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 오픈

직접 체험하는 '커넥티드 리빙' 중점

삼성전자가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세계 최대 쇼핑몰인 두바이몰에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를 새롭게 오픈했다.

두바이몰은 연간 1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세계 최대 쇼핑몰로, 부르즈 칼리파나 두바이 분수와 함께 두바이를 대표하는 유명한 랜드마크다.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는 단순히 제품이 전시되는 공간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품과 제품 간 연동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커넥티드 리빙' 솔루션 체험에 중점을 둔 스토어다. 이 스토어는 두바이몰의 2층 전자매장 입구에 위치하며 915㎡(300여 평)의 규모로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 매장으로는 중동에서 가장 크다.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에 방문한 고객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소비자들은 TV를 비롯해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 제품과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 모바일 기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제품들의 특징점을 직접 비교할 수 있으며 구매까지 가능하다.

/구서윤 기자

OCI파워

獨 인버터제조사 영입 인수

태양광 발전업체 OCI 자회사 OCI 파워가 독일 인버터 제조사 '카코뉴에너지(쾰)'의 영입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OCI는 이번 자회사 영입 인수로 기존의 태양광발전사업 솔루션에 이어 인버터·PCS 등 제조업 기술까지 확보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이번 인수를 통해 OCI파워는 독일에서 생산되는 스트링인버터를 한국과 일

본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또 OCI파워는 카코뉴에너지의 PCS 기술을 활용해 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도 확대, 분산형 전원 시장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허기무 OCI파워 사장은 "카코뉴에너지를 인수함으로써 인버터라는 핵심 기술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대림산업, 사우디 폴리부텐 공장 투자

2022년 착공·2024년 상업운전 계획 유럽·아시아시장 공략 교두보 확보

대림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폴리부텐 공장 운영 사업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 공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프랑스 토탈이 합작으로 사우디 동부 주베일 산업단지에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에 들어선다.

대림산업은 이곳에 연간 8만톤의 폴리부텐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착공해 2024년 상업운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일 공장에서 범용 폴리부텐과 고반응성 폴리부텐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기술 특허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아람코와 토탈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됐다"며 "이번 투



지난해 7월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본사에서 대림산업과 사우디 아람코, 프랑스 토탈 임직원들이 사우디 폴리부텐 공장 건설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은 앞줄 오른쪽부터 대림산업 김길수 부사장, 토탈 모스코니 부사장, 아람코 감디 이사. /대림산업

자를 통해 세계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1993년 국내 최초로 범용 폴리부텐의 상업 생산에 성공한 이래 2010년 고반응성 폴리부텐을 개발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지난 2015년 글로벌

윤활유 첨가제 1위 업체인 미국 루브리콜에 폴리부텐 생산 특허를 수출하기도 했다. 루브리콜이 생산하는 폴리부텐에 대한 독점 판매권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대림산업은 연간 총 33만톤의 폴리부텐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루브리콜의 독점판매권을 포함해 35%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전망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롯데비피화학, 울산에 1800억 증설투자

롯데그룹과 영국 BP화학 간 합작사인 롯데비피화학이 울산공장에 18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증설투자를 확정했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롯데비피화학은 울산공장 유휴부지(2만8000㎡)에 올해 1

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800억원을 투자, 초산과 초산비닐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간다.

초산비닐(VAM)은 초산을 주원료로 생산된다. LCD 디스플레이용 편광필름,

태양광 소재 하우징 등 첨단 전자소재는 물론 접착제, 식품용 포장재, 담배 필터, 고기능 발포제 등 고부가 제품, 의료기, 고기능 단열재 등에 사용 가능하다.

롯데비피화학은 이번 증설투자로 매출 '1조 클럽'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앞서 울산시는 이번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 2년간 영국 BP화학 경영진과 투자 협상을 진행해 왔다. /김유진 기자